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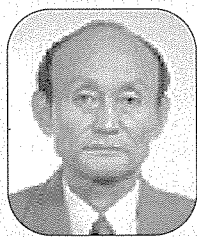
특 집 좌담

토기회의 창립 전후, 앞으로의 발전 및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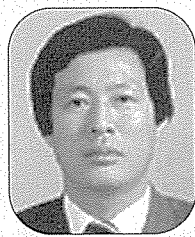
토기회 창간호 발간에 앞서 토기회의 위상과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으시는 몇 분을 모시고 특집좌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토기회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덕망과 기술력을 갖추신 분들을 모시고, 즐겁고 유익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하고자 합니다.

토론 참석자는 토기회 창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참석인원은 30대에서 70대 까지 총 5분을 모셨으며, 사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한미기초개발주에 근무하는 곽수정 박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는 토기회 회의실에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좌담회를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토론주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토기회 창립 전후 이야기, 토기회의 발전방향, 장기적인 운영방향** 등을 토론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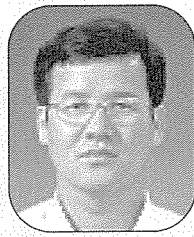
김주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고문



이재현
평원엔지니어링 회장



임수빈
아이에스컨설턴트 박사



김진홍
홍익기술단 박사



윤동덕
다산이엔지 이사

사회자 : 바쁘신 와중에도 토기회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토기회 발전을 위해서 토론 내용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토기회 창립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김주범 고문 : 그 당시 토기회를 만들면서 주로 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근황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의 성격상 개인의 친목과 정보교환이 전부였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사에서 준비한 기술자료를 교환하여 배부하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였지요.

이재현 회장 : 토기회가 만들어진 해는 대략 1981년 6월 8일 중국음식점 열반에서 가졌는데, 종업원에게 토기회에 오셨다고 하면서 안내하라고 했더니 중국인 종업원이 “토끼회”라고 명명해버려 토끼모임이 되었지요.

사회자 : 그 당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이재현 회장 : 여담이지만 토기도 여러 종류의 토끼가 있었지요. 응용지질기술사들은 야외에서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토끼였고요, 지구물리기술사들은 산에서 탄성파탐사 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토끼라 하였지요. 그런데 도심지건축 및 굴착 등에 참여했던 토질 및 기초기술사들을 집토끼라 불렀지요. 도토구(도로, 토질, 구조의 준말)가 아닌 토질 및 기초분야만 등록하고, 4인의 기술사가 있는 회사의 토끼는 금토끼라 하는 웃으개 소리가 있었습니다.

김주범 고문 : 초기에 총무를 맡았던 이재현 회장은 그 당시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회의록을 일일이 타이프하고,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냈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이재현 회장 : 박찬호 회장의 그 잘드시는 소주 1/4잔

마시고 부르는 “물방울” 이란 노래를 인용하여 만든 토기회의 주제가가 생각납니다. “큰바위 깨뜨려 돌맹이, 돌맹이 깨뜨려 조약돌, 조약돌 깨뜨려 모래알, 모래알 닦아서 흙되네” 하면서 토기회의 노래한마당에 술잔을 기울였지요.

사회자 : 세대별로 토질조사 및 실험현황을 간단하게...

임수빈 박사 : 저는 구조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85년부터 처음으로 토질시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자료가 부족한 시절이라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토질분야와 관련된 시방서 만드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외국에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진홍 박사 : 저는 시공회사에 입사한 후 약 1년 가량 동남아에 출장갔었는데, 출장전에는 없었던 실험자재들이 출장 갔다오니 실험장비를 많이 구매하여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임하댐” 건설 시기로서, 외국에서 실험장비를 구매하다보니 실험 메뉴얼이 생소해서 숙독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지요. 학교에서는 주로 자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많이 했는데, 수십개씩 다짐시험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험을 많이 하면서 흙의 상태만으로 흙의 다짐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토질시험을 많이 수행하였지요.

윤동덕 이사 : 80년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실험장비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압밀시험이나 전단시험들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물성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다짐시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동다짐시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주범 고문 : 건설부 실험실, 수자원공사 실험실, 서울

시 실험실 등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농진공에서 실험 장비를 많이 갖추다 보니 각 기관에서 실험실운영에 관한 문의가 많았으며, 그 당시 실험결과로 시공관리시험과 품질관리시험 등을 체계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가 60년대 초반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소규모 댐을 많이 만들던 시기로 연약지반에서 성토가 이루어지다 보니 제체의 안정을 위해서 토질실험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 :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임수빈 박사 : 입사초기에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플랜트설계를 주로 하였고, 플랜트의 특성상 구조물을 많이 다루었지요. 구조계산은 기존의 계산된 보고서의 샘플을 따라서 계산하던 시절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산에 적용되는 토질정수를 추정하지 못해서 이때부터 토질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질실험은 박찬호 회장에게서 많은 도움을 청하였고, 현장상황과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재현 회장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토질분야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플랜트설계를 하다보니 구조보다 토질이 재미있었고, 흥미가 있어서 뒤늦게 토질분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진홍 박사 : 저는 시공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장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으므로, 설계보다는 실험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90년 초반에 설계회사로 이직하면서 설계를 접하게 되었고, 지하철관관련분야에 일을 하다보니 터널분야 설계를 많이 접했지요. 그러나 터널설계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토질정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주범 고문 : 항만설계를 위한 조사를 많이 하다보니 연약지반과 관련된 조사 및 시험을 많이 하였으며,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공을 위한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기술분과별 세미나, 발표회 개최

사회자 : 두 번째로는 토기회의 발전방향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김주범 고문 : 토기회가 만들어진 초창기에서도 가장 우선시 해야할 일은 회원 확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작다보니 출장가고, 사무실이 바쁜 이유로 참석자들이 많지 않은데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모두 다들 지금까지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수빈 박사 : 현재 토기회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분과별로 기술세미나나 기술발표회 등을 통해서 모임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면 합니다.

김진홍 박사 : 본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지요. 회사별로 하시는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사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모아서 정기모임때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동덕 이사 : 기술적인 자료 중 회원들의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이거나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런지요. 때론 일을 수행하다보면 자료가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거라 판단됩니다.

이재현 회장 : 현재는 토기회의 인원이 많아 졌으나, 과거에는 인원이 작아서 토기회 회원 이외에 토질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같이 참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임의 주체가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인데, 회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방향

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진의 노력으로 많은 회원은 확보하고 있으나, 토기회가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패사례집 발간 기금조성

사회자 : 토기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김진홍 박사 : 사고나 실패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수빈 박사 : 좋은 자료를 나누어 줄려면 자료를 모으는 방법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범 고문 : (백세환 사장께서) 콘시협 정리자료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납하신 분에게는 한권씩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연약지반 실험치만 따로 모아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정리되면 회원들에게 자료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플랫폼해서 고생한 자료들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농진공에서 언젠가 실패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농진공에서는 실패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관께서 “대단한 것 만드셨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쉽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사례집은 일본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시절이었지요. 원로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토기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정해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덕 이사 : 현재 토기회의 모든 방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는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

원들의 업무 수행시 문제점들을 타파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토기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기술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회장 : 2003년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는 제1호 과기처 품셈인 지질조사품셈을 개정코자 현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질 및 기초(제4호품셈) 조사품셈의 내용도 개정하여 합본하는 계획을 조성민 부회장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질 및 지질분야에서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와 토기회가 협력하여 소속히 시행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실패사례를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하고자하는 의견은...

임수빈 박사 : 알면서도 실패사례는 못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사의 방향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술감사보다 행정감사가 되어야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데 운신의 폭이 커져서 실패사례집들이 많이 발간되지 않을까요.

김진홍 박사 : 기존의 원로분들의 자료도 중요하데, 지나간 턴키자료들 중에서는 연구 가능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술적인 발전의 기회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핵심적인 자료는 회사의 기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토질조사자로나 문제해결에 고민이 되었던 과거 자료들을 허심탄회하게 거론되었으면 합니다.

윤동덕 이사 : 턴키 심의전 미리 자료를 내놓는 것은 심의하는 입장에서 잘못될 수 있으므로, 5년 정도 지난 자료들을 재집성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토기회의 발전을 위한 정기모임의 활성화 방안은...

이재현 회장 : 토기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등 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토기회에 참석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김주범 고문 : 토기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친목과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므로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간에 주특기사항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면 각자 좋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주업무 방향 등을 자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수빈 박사 : 토기회가 사단법인으로 승격되면서 모임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합격한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각 회사에 후배 기술사들이 같이 근무하시면, 함께 나와서 소개도 시키면서 자연스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김진홍 박사 : 정기모임에 이슈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임 전에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하여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모두가 참석하면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동덕 이사 : 처음 모임에 나오신 분은 서로의 인사가 부족하여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회원들이 서로를 끌어 안고서 동질성이 가지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선임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임수빈 박사 : 변호사 선임시 토목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자들이 부족한 부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홍 박사 :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공계의 교육과정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토기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후학들을 위한 토목인으로서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윤동덕 이사 : 양산의 모현장에서 계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측측정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률적인 접근에 있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경우라도 선임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례들을 모아서 배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주범 고문 : 우리사회는 정으로 뭉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 우선 정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사회자 : 마지막으로 토기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재현 회장 : 역대 회장님들이 기금활용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회원수도 많아졌고, 기존회비와 추가회비로 회비도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적절한 활용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김주범 고문 : 토기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분과를 더욱 활성화하여 분과별로 기술세미나를 한다든지 분과별로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기회의 모임을 바랍니다.

임수빈 박사 : 토기회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원진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기가 됐든, 1년에 2회가 되었던 간에 토기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진홍 박사 : 이기적인 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임원진에서 방향을 잘 설정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토기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윤동덕 이사 : 토기회 모임이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으니, 지방에서는 쉽게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모임이 가능하도록 토기회 지회를 만드는 방안이 어떨까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오늘 좌담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터 널 설 계
- ▣ 비 탈 면 설 계
- ▣ 연 약 지 반 설 계
- ▣ 지 반 조 사
- ▣ 기타지반분야설계